

高麗時代 絹織物の 實證的 研究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조교수 趙孝淑

目 次	
I. 序 論	V. 織物 紋樣의 分析
II. 版藏織物의 意義	VI. 要約 및 結論
III. 出處別 分類 및 狀態	參考文獻
IV. 織物組織의 分析과 織物名稱의 設定	

I. 序 論

高麗時代의 絹織物 製織水準은 발달된 上代社會의 織造 및 染色技術이 계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宋, 元과의 활발한 직물교역을 통해서 아름답고도 섬세한 絹織物을 제작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時代의 絹織物에 관해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中世 絹織物 發達狀況을 구명하는 것은 韓國織物史 및 服飾史 연구에 있어서 意義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韓國絹織物에 관한 研究로는 1974년 金相溶의 “文獻으로 본 古代의 織物”¹⁾을 시작으로 閔吉子의 “우리나라 古代 絹織物 研究”²⁾를 비롯하여 수련의

논문이 있으나 이들은 문헌자료에 의하여 우리나라 古代부터 朝鮮時代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문헌 해석에 중점을 두었다. 유물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曹圭和의 “正倉院의 高麗錦”³⁾, 金相溶의 “遺物을 통하여 본 古代의 纖維技術”⁴⁾ 등이 있으나 이들은 統一新羅時代의 극히 소수의 유물을 대상으로 고찰하였으며 李京子의 “朝鮮王朝 時代 織物의 紋樣 考察”⁵⁾, 金允희의 “Symbolic and Decorative Motifs of Korean Silk”⁶⁾ 등은 朝鮮時代 絹織物을 紋樣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별히 高麗時代 絹織物만을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로는 자료의 부족으로 安明淑의 “文殊寺 遺物 袍와 織物에 관한 研究”⁷⁾와 張慶姬의 “14世紀의 高麗 染織 研究”⁸⁾ 등에

1) 金相溶, “文獻으로 본 古代의 織物”, 『織物檢査』 2권 1호, 한국직물 시험검사소 1974, pp.25 ~ 29

2) 閔吉子, “우리나라 古代 織物 研究—絹織物을 中心으로”, 『教育論叢』 2집, 國民大 1982, pp.103 ~ 118. ; “우리나라 織物 技術에 대한 研究”, 『教育論叢』 4집, 國民大, 1986, pp.123 ~ 132. ; “織物의 種類에 관한 研究”, 『教育論叢』 6집, 國民大 1986, pp.107 ~ 127.

3) 曹圭和, “正倉院의 高麗錦”, 『大韓家庭學會誌』 4권 1호, 大韓家庭學會, 1976, pp.1 ~ 14.

4) 金相溶, “遺物을 통하여 본 古代 纖維技術”, 『織物檢査』 2권 2호, 한국직물 시험검사소, 1974, pp.1 ~ 6 ; “車騎 跨帶에 쓰이던 古代 織物”, 『織物檢査』 5권 1호, 한국직물 시험 검사소, 1977, pp.10 ~ 20

5) 李京子, “朝鮮王朝時代 織物의 紋樣 考察”, 『論叢』 Vol.25,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1975.

6) Yoon-Hee Kwon, 『Symbolic and Decorative Motifs of Korean Silk』, 一志社, 1988.

7) 安明淑, “文殊寺의 袍와 織物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4.

8) 張慶姬, “14世紀의 高麗 染織 研究”, 『미술사학 연구』, 190, 191, 1991

불과하였고 이들 논문은 모두 文殊寺 金銅如來坐像 腹藏織物을 紋樣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직물 製織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90년 온양민속박물관에서 高麗時代의 阿彌陀佛腹藏物을 다수 공개하여 실물 분석을 통해 실증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1년 金美子와 필자의 “1302년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⁹⁾가 발표되었고 곧 이어 閔吉子の “韓國傳統紋織物의 組織에 대한 考察 I”¹⁰⁾, 민길자의 4명으로 구성된 민속종합조사팀에 의해 「韓國民俗 綜合調査報告書」¹¹⁾가 발표되는 등 유물과 문헌을 연관시킨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에게 鳳樓里塔織物과 長谷寺 鐵造藥師佛에서 나온 高麗時代의 腹藏織物 수습점을 조사할 기회가 있었다. 특히 長谷寺 鐵造藥師佛 腹藏織物은 文殊寺 金銅如來坐像腹藏織物이나 1302년 阿彌陀佛腹藏織物과 매우 유사한 공통점이 있었으므로 高麗末期에 사용되었던 직물의 특징을 일괄 정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의 腹藏時期, 腹藏主體人物, 腹藏場所가 서로 다른 네 곳의 직물 305점을 종합 분석하여 공통점을 유추해 내어 高麗時代 絹織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研究 內容으로는 먼저 이처럼 많은 高麗時代 직물이 존재할 수 있었던 塔이나 佛像 內의 腹藏織物의 意義를 규명하며 네 곳의 腹藏織物을 출처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腹藏織物이 봉안되어진 시대와 각 유물들의 보존상태 및 製織과 관계되는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한다. 다음으로 유물들의 組織法을 유형별로 분석한 후 각각의 유형과 문헌에 나타난 織物名을 연결하여 高麗時代에 사용된 絹織物의 名稱 및 이에 따른 組織의 특징을 고찰한다. 끝으로 유물에 표현된 紋樣에 관하여 그 展開方法 및 種類를 분석하여 表現樣式 및 特徵을 찾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韓國 織物史 및 服飾史에 있어서 近世 以前의 空白期를 補完하며, 나아가 고도로

발달되었던 韓國傳統織物의 位相을 定立함에 기여하고자 한다.

研究方法으로는 견직물 선별을 위하여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것은 10배 혹은 40배의 현미경 검사법을 사용하였다.

製織法에 관한 分析은 먼저 織物組織을 알기 위해 10배와 40배의 현미경 확대사진을 찍어 조사하였으며 平織, 綾織, 撚組織, 二重組織, 縐子織 등의 유형으로 크게 분류한 후 다시 각 조직을 세분하여 총 16종류로 나누었다. 유물의 직물 조직 명칭은 우범식, 민길자, 중국의 陳維縷, 黃能馥의 방법을 참고로 하였으며 中國 및 日本유물의 조직 명칭은 그 나라의 연구자들이 호칭한 그대로를 사용하였다. 밀도를 조사하기 위해 7배의 밀도경(pickglass)과 직물 밀도 자동측정기(densimeter)를 사용하였으며 1cm² 안의 경위사 밀도를 경사밀도×위사밀도/cm로 표시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직물두께 측정기(mitutoyo)를 사용하여 직물과 실의 두께를 mm로 측정하였다. 그 밖에 모든 직물의 크기 및 紋樣의 크기 등은 cm로 계측하였다. 이와같은 방법에 의해 분석된 製織方法의 여러 유형을 다시 문헌 조사에서 나타난 絹織物 名稱과 연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정립되어 있는 中國 및 日本의 각종 문헌과 유물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紋樣의 分析은 먼저 單位紋樣의 展開方法을 9종류로 세분하여 高麗時代의 특징적인 紋樣 展開方法을 찾아내었다. 다음으로 紋樣의 種類를 紋樣構成에 있어 單獨紋樣과 複合紋樣으로 분류한 후 각각을 다시 素材의 種類별로 세분하여 紋樣의 종류 및 表現樣式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II. 腹藏織物의 意義

지금까지 알려진 高麗時代 직물은 朝鮮時代와는 달리 고분 출토 유물은 한점도 없으며 모두 高麗時代에 성행하였던 불교와 유관한 것이었다. 가장

9) 金美子·趙孝淑, “1302年 阿彌陀佛 腹藏織物의 分析”, 「1302년 阿彌陀佛 腹藏織物의 調査研究」, 온양민속박물관, 1991, pp.105~144.

10) 閔吉子, “韓國傳統紋織物의 組織에 관한 考察 I” 「教育論叢」 10집, 國民大, 1990, pp.97~122.

11) 閔吉子の 4명, 「韓國民俗 綜合調査報告書」,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 관리소, 1991.

맡은것은 불상의 내부에 납입되었던 佛腹藏物로 300여 점이 넘었으며 그밖에 탑속에 납입되었던 직물이 10여점, 寫經을 썼던 經帙 1점¹²⁾, 불화의 바탕천으로 사용되었던 絹織物이 수 십점 있다. 그 중에서 본 연구 대상의 직물은 모두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불상이나 탑을 제작할 때 넣었던 직물편들로 복장시기늬 알 수 있는 1곳의 塔舍利杖의 織物과 3곳의 佛腹藏織物을 대상으로 하였다.¹³⁾ 이처럼 현존하는 高麗時代 직물은 모두 불교와 밀접하고 특히 많은 직물이 佛腹藏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물들의 진가를 보다 깊게 인식하기 위하여 먼저 당시 腹藏織物의 意義를 고찰하고자 한다.

佛腹藏品은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유물을 말하는데 즉 불상의 복부 속에 넣은 불교적인 상징성을 띤 물품이다. 그러므로 佛腹藏品은 종교적 존엄성과 신성함을 가지고 있다.

高麗時代 직물이 出上品은 전혀 없는데 반하여 佛腹藏品만이 다수 보존될 수 있는 이유는 불교의 융성으로 수많은 사원의 건립과 함께 호화스러운 불화, 불상의 제작이 왕실이나 귀족사회에서 매우 성행하였으며 이러한 불화나 불상 등은 종교적 이유로 신성시되어 많이 파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점은 불상을 제작할 때에는 불상의 복부 내에 직물류와 함께 방부제 역할을 하는 다수의 방항제류가 넣어졌으며 여러 품목을 불상내에 복장한 뒤 옷칠로 마감하였기 때문에 납입된 복장품들은 병충해의 피해를 받지 않았고 더욱이 이러한 腹藏織物들은 위선 밀폐된 상태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출토품과는 달리 색상의 변화도 막을 수 있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복장물의 내용에 관하여 高麗時代에는 정확한 의식을 담은 기록은 없으나 이규보가 쓴 “洛山觀音腹藏修補文瓶頌”에 의하면 ‘...절의 부처까지 손상

을 입었으며 형체는 겨우 보존되었으나 腹中の 珍藏은 모조리 비어... 이에 전임의 소장에 미루어 삼가 心圓鏡 두개와 五香, 五藥, 색실, 비단 주머니 등의 물건을 갖추어 복층을 채워서 완전히 복구하여 禮와 더불어 손상이 없게 하였으니...’¹⁴⁾라 하고 있으니 高麗時代 복장물로 心圓鏡, 五香, 五藥, 색실, 비단 주머니 등의 물건이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불복장물의 발견사례에서는 위의 내용 이외에도 직물조각과 의복을 넣기도 한다. 직물이나 의복의 첨가에 대한 문헌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을 넣는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4세기 중반에는 밀교 경전이 간행될 정도로 고려 불교계의 신비적 성향은 어느 시대보다 강조되었으며 1302년 阿彌陀佛腹藏에도 입었던 자국이 있는 옷을 넣었다는 점은 당시의 만연되었던 세속성이 강한 민속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腹藏에 대한 기원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중국에서는 唐代에 佛像의 胎內에 五臟六腑 등을 넣었다는 기록이 있으며¹⁵⁾ 實例가 증명된 것은 宋代이다. 日本 京都 清涼寺 所藏의 釋迦如來立像은 AD.985년 宋에서 그 모작상을 만들어 AD.987년에 일본에 들여온 것으로 복부내에서 299점의 직물조각이 나왔다. 직물의 종류도 錦, 綾, 羅, 絹 등 다양하였으며 크기는 각양각색으로 비교적 큰조각도 있으나 1cm² 정도의 작은 조각도 있다.¹⁶⁾

일본의 경우 AD.761에 石山寺 塑造觀音菩薩像의 胎內에 사리를 넣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실물의 예로는 AD.1077년에 조성된 四天王寺에 있는 藥師如來佛에서도 다수의 복장품이 나왔으며 그 중 직물류도 4점이 있다.¹⁷⁾ 또한 聖護院에 안치되어 있는 AD.1143년에 조성한 智證大師의 木像 복부내에 납입되어 있던 「入唐求法目錄」을 담은 錦으로 만든 자루가 있는데 직물조각을 따로 넣은 경우와는 다르나 일종의 腹藏織物로 볼 수 있다.¹⁸⁾

12) 권희경, 「高麗寫經의 研究」, 미진사, 1986, p.129

13) 1312년 복조 아미타불, 1323년 청동관수관음상의 부속 직물은 원래주성이 불확실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14) 李全報, 「東文選」권 50, 頌, 「洛山觀音腹藏修補文瓶頌」

15) 박성원, 정원경, “永泰二年 銘鐵石製甕”, 「부인학원시립박물관보」, 제6집, 1983, p.57

16) 布日順郎, 「絹と 布の 考古學」, 雄山閣版, 1988, p.113

17) 毎日新聞社 編, 「重要文化財 別券1」, 1978.

18) 京都書院, 익 책 1983, p.73

織物片은 이와같은 佛像 이외에도 塔에서도 발견된다. 佛像에 腹藏된 것처럼 많은 종류는 아니지만 사리구와 함께 밑바침, 보자기, 주머니의 형태로 넣어졌다. 시대가 올라가 統一新羅時代의 佛國寺 釋迦塔 內에서도 다수의 綾, 羅片이 나왔으며¹⁹⁾ 高麗時代에도 6곳의 塔舍利具에서 직물편이 발견되었다.²⁰⁾ 그중에서도 12세기로 추정되는 鳳棲里 塔에서는 사리병을 받쳐 놓았던 錦이 1점 발견되어²¹⁾ 高麗中期 錦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처럼 上古, 中世時代에 韓國, 中國, 日本을 비롯한 동양 지역에서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불상이나 탑을 제작할 때 그 내부에 직물류를 넣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각양각색의 진귀한 옷감 조각들은 그 복장을 위해 따로 재단하여 넣은 큰 직물이 아니고 크기와 형태가 큰 것은 한필에서부터 작은 조각은 1cm 정도로 다양한데 이러한 방법은 宋代에 복장된 淸涼寺의 腹藏織物과 동일하였다. 직물에는 발원자의 이름이 묵서되어 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러한 중요한 기록을 조그만 직물 조각에 하였다는 점은 당시에 직물을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보관하였는가를 추측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견직물 제작이 매우 발달하였던 宋代에서 조차 1cm 밖에 안되는 작은 조각을 넣었다는 점은 직물의 귀함을 떠나서 새옷이 아닌 입던 옷을 납입한 경우와 맥락을 같이하는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지금까지 간행된 佛腹藏物 발견 보고서는 모두 17편으로²²⁾ 그 중 高麗時代에 해당하는 것은 6건이며 그 중 의복이 발견된 것은 1302년 阿彌陀佛과 1346년 金銅如來坐像이고 직물류가 발견된 것은 5건으로 1302년 阿彌陀佛을 비롯하여 모두 고려말기에 腹藏된 것이다. 이상의 佛腹藏物 발견사례에 의하면 高麗時代에는 朝鮮時代와는 달리 대부분의 佛腹藏時에 많은 직물류를 넣었음을 알 수 있다.

塔內의 직물 발견사례는 매우 많은데 그 중에

高麗時代의 舍利具에서 직물이 발견된 경우만 정리하면 모두 6건이다.²³⁾ 이처럼 塔이나 佛像 腹藏時에 넣는 의복이나 직물류는 종교적으로 간절한 발원을 위하여 넣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부분 조성 시기가 확실한 발원문이 함께 들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물 자체에도 발원 년도 및 발원자명이 정확히 묵서되었으므로 그 직물이 제작되고 사용되었던 시대를 정확히 알 수 있어 그 당시의 직물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이와같은 佛腹藏을 통하여 발원할 수 있는 계층은 일반 서민 계층에서는 불가능하였으며 재력과 권력이 뒷바침될 수 있는 왕족이나 권문세가 계층이었기 때문에 당시 高麗佛像이나 高麗佛壽가 아름답고 호화스러운 貴族의 경향이었던 점과 같이 佛像 속에 납입된 직물류도 貴族階層에서만 통용되었던 貴族趣向 내지 宮廷趣向이 농후한 고급의 직물이었다고 생각된다.

Ⅲ. 出處別 分類 및 狀態

1곳의 塔과 3곳의 佛像에서 발견된 직물들을 발굴 장소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출처에 따른 불상의 제작시기, 발굴 경위, 복장물의 보존상태를 고찰하여 복장된 직물들이 제작되고 사용되었던 시기를 규명하였으며 상태 및 색상, 크기, 밀도, 나비, 조직, 무게 등을 조사 정리하였다.

1. 鳳棲里塔織物

국립박물관 소장의 봉서리탑 사리구는 일제말기 절취단에 의해 도괴되어 일본으로 유출되었던 것으로 1966년 한일 문화재 반환 협정에 의해 국립박물관에 입수된 것이다. 그후 1983년 장충식에 의해 조사 보고되었다.²⁴⁾

보고서에 의하면 봉서리탑은 조형 양식상 統一新羅 末期 또는 高麗 初期를 벗어나지 않으나 탑

19)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編, 「佛國寺 復原 工事 報告書」, 1976.

20) 國立中央博物館 編, 「佛舍利 莊嚴」, 도서출판 김문사, 1991, pp.230~233

21) 張忠植, 「聞慶 鳳棲里石塔의 調査」, 「佛敎美術」7, 동국대학교 박물관, 1983, pp.51~64.

22) 許興植, 앞 책, 1988, pp.24~25.

23) 주 20) 참조

24) 주 21) 참조

속에 들어 있는 靑磁椀과 木盒의 제작기법이 12세기 이전으로는 볼 수 없기때문에 鳳樓里塔 舍利貝의 腹藏年代를 12세기로 설정하고 있다. 이 사리구의 내용물은 목합, 정자완, 청자접시, 견직물 4점, 유리구슬, 환석제, 관옥, 수정구슬, 향목 등이 농양품으로 들어있다.

絹織物은 紫地花紋錦, 靑色絹, 藍色 비단주머니, 紫色 비단주머니 등이 있었다. 紫地花紋錦은 복장된 견직물 중 가장 화려하고도 중요한 것이었다. 크기는 22.5×13.8cm로 자주색 바탕에 옥색, 녹색, 황색, 연보라색의 위사들로 花紋이 시문되었다. 직물의 조직은 表經絲, 心經絲, 地緯絲, 紋緯絲의 4종류에 의해 경 3매능바탕에 花紋이 있는 二重組織으로 전형적인 緯錦이라 하겠다. 경위사는 모두 무연사이며 경사는 매우 가늘고 위사는 굵다. 경위사 밀도는 23×16/cm이다.²⁵⁾

紫地花紋錦은 직물 조직변이나 문양의 양식으로 보아 일본 정창원에 소장된 統一新羅 錦과 高麗末期의 佛腹藏織物들과의 중간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 고려초기에서 중기의 직물로 시대를 추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장충식이 사리구를 12세기로 추정할 바와 일치된다고 하겠다. 이 직물은 공백 상태의 고려 진반기의 錦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큰 것이다.

2. 1302년 阿彌陀佛腹藏織物

온양민속박물관 소장의 복장유물은 1989년 가을에 입수한 것으로 구입당시 이 복장물을 품고 있던 불상은 없었고 복장물만이 노출, 보관되어 왔다. 그러나 발원문의 내용으로 大德 5년, 고려 충렬왕 28년(AD.1302)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네 가문이 연합으로 그들의 제례와 기복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阿彌陀佛像의 복장물임이 확인되었다.²⁶⁾

복장물 목록은 발원문과 발원자 명부, 만다라와 다라니, 곡물류와 찢쌀, 향료 및 약재, 섬유류, 그 밖에 합, 거울, 방울, 광물질 등이며 섬유류는 3점의 의복, 5개의 주머니, 5색실, 220여편의 직물조

각이 있다. 직물들은 크기와 형태는 다양했으며 복장을 위해 별도로 재단한 것이 아니고 쓰다 남은 각양각색의 천 조각을 넣은 점이 특징적이며 이 직물에는 지름이 2.2cm 되는 작은 원형의 검정색 變茶羅가 적힌 것이 많다.

220여점 중 삼베 15편, 모시 14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견섬유인데 무늬가 없는 평직물이 94점, 무늬가 있는 문직물이 107점으로 각종의 문직물이 많기 때문에 매우 화려하고 다양하다. 무늬 표현은 2점의 금박직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직법에 의하여 시문되었다. 200여점의 직물 조각 중에는 성분, 조직, 문양, 색상이 모두 다른 것도 있으나 동일한 직물이 크기만 다른 것, 색상과 조직은 같으나 분양이 다른 것, 조직은 같으나 문양과 색상이 다른 것 등으로 분류된다. 직물 종류는 麻布, 苧布, 絹, 紬, 絹, 羅, 綾, 錦이 있었으며 문직물 중에서는 綾과 羅가 가장 많다. 직물의 색상은 靑色, 灰靑色, 靑色, 玉色, 狎綠色, 柳綠色, 淡黃色, 黃色, 朱黃色, 朱紅色, 紫色, 粉紅色, 茶色, 固銅色, 벽돌색, 素索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특징적인 것은 金絲, 銀絲, 銅絲와 같은 화려한 금속사를 사용한 직물이 많다. 문양의 종류는 小花紋, 草花紋, 鳥紋, 雲紋, 靈芝兎紋, 寶紋, 如意紋 그밖에 幾何紋이 있다. 직물의 경위사 밀도는 직물의 종류별로 다른데 羅는 일반적으로 얇고 투명하며 밀도가 성글다. 綾의 경우는 크게 2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한 종류는 4~6枚綾으로 대부분 능선 방향이 반대이며 밀도가 성글 것과 다른 종류는 3枚綾으로 대부분 능선 방향이 같고, 밀도가 치밀한 것이다. 직물의 나비는 47~60cm 사이로 모두 광폭으로 제직되었다. 중국의 福州南宋黃升墓에서 출토된 絹織物 나비와 같아 그 당시 중국 및 고려에서 통용되었던 일반적인 견직물의 나비를 알 수 있다.

3. 長谷寺 鐵造藥師佛腹藏織物

국립박물관 소장으로 있는 이 복장물은 충남 청양군 장곡사 하대웅전의 주존칠불에서 나온 것으로 1955년 7월 복장물 일수는 불상에서 분리된 채

25) 4종류의 絹織物 중 紫地花紋錦과 그 안감의 靑色絹만을 직접 조사하였으며 紫色 비단편, 藍色주머니를 비롯한 기타 腹藏品은 필자가 직접 보지 못하여 장충식의 보고서에 의한 내용이다.

26) 許興植, 앞 책, 1991, pp.37~40

로 민영규에 조사가 의뢰 되었고 그후 보고서가 작성되었다.²⁷⁾

보고서에 의하면 먼저 후령은합이 黃色, 淡紅, 黑藍, 綠, 白의 5색의 보자기로 싸여져 190cm 길이의 紐條로 결속되어 있다. 黃色의 보에는 발위자 이름이 묵서되어 있다. 후령은합 내부에는 참쌀과 수정 그리고 黃, 赤, 藍, 白, 綠의 비단을 접어 만든 五寶褰瓶이 들어 있고, 각각 麻子, 白茶, 雄黃, 甘草, 丁香, 琉璃 등이 싸여 있다. 후령은합과 함께 각종 經典類, 百銅鏡 1점, 繡가 놓인 주머니 1점, 바늘 주머니 1점, 至正六年丙戌七月初八日誌라 기록된 封書, 至正六年丙戌六月十日誌라 기록된 모시포 1점, 발원문이 기록된 紅色絹이 1匹이 있다. 그외에도 수십 점의 직물조각들이 이와 함께 넣어졌는데 그중 4~5조각에는 박원문에 적힌 동일한 시주자의 이름이 묵서되어 있다.

민영규는 이와같은 묵서를 근거로 하여 이 유물이 至正六年 高麗 忠穆王二年(1346)에 복장되었음을 추정하였다. 복장물 중에 至正 6년에 복장 공양된 것으로 헤아려지는 것을 열거하면 ①후령은합과 이 은합을 싼 각종 직물과 오색실 ②백동경 ③주머니 ④바늘주머니 ⑤封書 ⑥至正 6년 6월 16일이라 묵서된 모시포를 비롯한 각종 직물 조각들이라고 하였다.

특히 30여점의 각종 직물조각들은 모두 至正 6년 7월 초과일에 복장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그러한 증거로 첫째, 이들 직물 문치는 造像供養軌儀軌次第에 있어서 그 핵심부를 이루고 있으며, 둘째로 각종 직물 등에 묵서한 시주자들의 이름이 발원문을 적은 紅色絹의 施主帳에 적힌 바와 합치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腹藏織物은 그후 공개되지 않았으며 처음 발견되었던 상태 그대로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왔다. 1991년 필자가 腹藏織物을 처음 보았을 때는 발굴 후 26년이 지난 후였지만 직물들은 변색되지 않고 깨끗하며 그 상태가 매우 양호하였다.

보관되어 온 복장물 중 섬유류만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3개의 주머니, 5색 실, 47점의 직물 조각 및 발원문이 적혀 있는 피륙상태의 紅絹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는 7점의 평건직물이 별도로 한 봉치 들어 있으며 여기에는 한글로 된 묵서가 있으므로 이러한 직물군은 中宗 26년 불상을 개금할 때 넣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1점의 모시와 위의 평건직물 7점을 제외한 高麗時代의 絹織物로 추정되는 3점의 주머니와 40점의 직물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직물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으며 대부분 고급의 견직물이었다.

은양민속박물관 소장의 阿彌陀佛腹藏織物보다 옷감 조각의 수효는 매우 적지만 동일직물을 여러 조각씩 넣지 않았고 무늬가 없는 평직물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고급의 문직물 종류는 비교적 다양하게 들어 있었다. 무늬가 없는 平織物이 9점, 紋織物이 31점이며 직물의 종류는 織金, 綾, 羅, 絹, 絹 및 緞이 있는데 특히 織金과 羅가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은양민속박물관 것보다 綾, 絹의 종류가 적었다. 특히 織金은 7점이나 되었으며 1302년 阿彌陀佛腹藏織物에는 찾아볼 수 없는 紋綾이나 紋羅 위에 金絲로 上紋을 제작한 직물류도 있어 전반적으로 매우 화려한 느낌을 주었다.

직물의 색상은 鴉青, 靑, 靑綠, 褐色, 벽돌색, 朱黃, 米色, 綠色, 柳綠色, 暗綠色, 黃色, 粉紅色, 玉色 등으로 다양했으며 문양의 종류는 小花紋, 草花紋, 鳳凰唐草紋, 雲紋, 花兔紋, 靈芝紋, 龍紋 등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1302년 阿彌陀佛腹藏織物이나 文殊寺 金銅如來坐像과 유사한 문양이 많은 점이다. 직물에 따라 경위사 밀도는 다양한데 대체로 1302년 阿彌陀佛腹藏織物과 유사하다. 직물의 나비는 53~62cm로 모두 광폭으로 제작되었다.

4. 文殊寺 金銅如來坐像腹藏織物

동국대학박물관 소장의 이 복장물은 충청남도 서산 文殊寺의 金銅如來坐像에서 나온 것으로 1975년 姜仁求에 의해 첫 보고서가 작성 되었다.²⁸⁾ 앞에 설명된 두 곳의 복장유물은 불상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을 조사하였던 점에 반하여 후자는 불상에서 처음으로 복장물을 꺼내는 과정부터 조사되었으므로 복장된 모습을 더욱 상세히 알 수 있

27) 閔泳珪, “長谷寺 高麗鐵佛 腹藏遺物”, 『인문과학』15, 16合, 1966.

28) 姜仁求, “瑞山 文殊寺 金銅如來坐像 腹藏遺物”, 『美術資料』18號, 1975, pp.1~8.

다.

보고서에 의하면 불상의 頸部에는 喉鈴等 금속물을 넣고 木盒 등은 가슴부분에, 기타 발원문과 같은 문서류는 腹部에, 最下部에는 섬유류가 들어 있다. 最下部의 섬유류 문치에는 白苧布 1벌을 비롯하여 다수의 직물류가 있다. 가슴 부분에 있는 木盒은 5색의 보자기로 짠 다음 五色絲로 결속되었고 그 내부에는 쌀과 5색의 비단으로 접어 만든 五寶瓶이 있으며 각각의 五寶瓶 속에는 五穀과 약초 등이 싸여 있다. 腹部에 있는 발원문에 불상의 조성 연대가 至正六年九月初八日로 적혀 있다. 그 밖에 각종 文書類, 佛經類, 小珠, 充填用 白紙 등이 있다.

姜仁求는 발원문에 의하여 그 조성 연대가 至正六年 高麗 忠穆王 2년(1346)이며 함께 복장된 불건물도 모두 이 시기 이전의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불상을 조성한 주체자는 元 지배 하에서 성장한 새로운 권문세족들이라 하였다.

섬유류만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모두 64점으로 백지포 1벌, 오색실 그리고 보시가 2점이고 나머지 60점은 모두 견섬유이다.²⁹⁾ 직물의 상태는 처음 발견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매우 양호하였다. 직물 종류는 역시 織金, 綾, 羅, 絹, 緞로 앞서 조사한 2곳의 복장물들과 유사하다. 특히 長谷寺 鐵造藥師佛腹藏織物과는 조성연대가 같아서인지 조직과 분양에 공통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약간의 차이점은 2곳의 織物에 비하여 부늬가 없는 平絹이나 素綾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紋織物이 적었다. 색상은 淡褐色, 鴉青色, 淡青色, 淡玉色, 柳綠色, 綠色, 靑綠色, 朱黃色이며 문양의 종류는 小花紋, 雲紋, 龍紋, 鳥紋, 卍字紋, 龜背紋, 寶紋 등이 있다. 직물의 경위사 밀도도 다른 두 곳의 腹藏織物과 대부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직물의 나비는 46~55cm로 長谷寺 鐵造藥師佛腹藏織物이나 1302년 阿彌陀佛腹藏織物에서와 같이 55cm가 넘는 직물은 없었다.

IV. 織物組織의 分析과 名稱의 設定

1. 織物組織의 分析

이상 4곳에서 발굴, 보관되고 있는 305점의 絹織物을 조직에 따라 그 유형을 크게 平織, 綾織, 縹組織, 二重組織, 縐子織으로 분류하며 각각을 다시 세분하여 도합 16종의 Type으로 분류하였다.

1) 平織(Plain weave)

유물에 나타난 平織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은 3Type으로 나뉘어진다.

(1) Type 1

한 바디구멍에 한 울의 경사를 끼운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다(도 1-1, 도 1-2). 조직이 간단하여 쉽게 사용되었으므로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사용된 실의 굵기 및 꼬임의 정도, 경위사의 밀도 등에 따라 표현된 질감이 다르게 느껴진다.

(2) Type 2

바디 구멍에 경사를 끼우는 방법(denting)의 변화를 준 平織이다. 즉, 한울을 끼고 한울 걸르는 방법, 또는 두울을 끼고 한울 걸르는 방법으로 경사를 건 다음 平織으로 짠 직물로서 경사와 경사 사이에 공간을 두어 透孔率이 높게하였다(도 2-1, 도 2-2). 이러한 유형은 경위사가 모두 가늘고 꼬임이 많은 것을 사용하여 얇고 투명한 효과를 주는 직물제작에 사용되었다. 유물중 11종이 이러한 유형으로 제작되었다.

(3) Type 3

굵기를 단리한 경위사를 平織으로 짜 표면 효과를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경사는 매우 가늘고 반대로 위사는 경사보다 2~3배 굵기의 것을 사용하여 經敵織(warp rib weave)과 같은 효과를 표출하기 때문에 위사는 곧게 놓여있으며 경사는 구부러져서 위사를 덮어서 가로 방향으로 풀이 지도록 제작된 직물이다(도 3). 유물 중에는 5종의 직물이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2) 綾織(Twill weave)

綾織은 斜紋織이라고도 부르며 직물면에 조직점으로 연결된 능선 또는 사문선을 나타내게 된다.

29) 姜仁求의 보고서에는 내장된 섬유류는 총 78점으로 그중 2점이 보시이고 76점이 견섬유이었으나 현재 남아 있는 섬유류는 64점 밖에 없었다.

平織에 비하여 지질이 치밀하고 탄력성이 좋다. 유물에 사용된綾織의 유형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은 5Type으로 분류된다.

(1) Type 1

平織 바탕에 무늬 부분에만綾織을 사용하거나 또는 불규칙한 경위사의 浮出의 방법에 의해 제작된 직물이다<도 4-1, 도 4-2>. 이러한 조직은平織에서綾織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서綾織발달의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正則綾織에 비하여 지질이 성글로 부드럽다. 유물 중에는 모두 2종만이 이러한 유형으로 제작되었다.

(2) Type 2

경사가 많이 부출된 경능 바탕에 위사가 많이 부출된 위능으로 무늬를 표현하거나 반대로 위능 바탕에 경능으로 무늬를 표현하는 조직법으로 이때 바탕과 무늬의 능선의 방향은 반대가 되어異向綾織이라고도 한다<도 5-1, 도 5-2>.

또한 3매능직 중에는 지질의 더욱 치밀한 효과를 위하여 위사 2올을 합사로 꼬아 사용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경위사의 굵기에 차이가 생겨 표면은綾織으로 보이나 배면은平織과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3) Type 3

제작법은 Type 2와 같으나 바탕과 무늬의 능선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표출된 직물 유형이다<도 6-1, 도 6-2>. 유물 중에는 여러 점의 3매능직에서 동방향의 능선이 많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조직은 대부분 경위사의 밀도가 높아 지질이 치밀하였다.

(4) Type 4

바탕은 3/1 경 4매능직으로 제작되었으며 무늬는 일정한 규칙 없이 위사방향으로 길게 띄어지는 제작방법이다<도 7-1, 도 7-2>. 직물의 강도는 떨어지나 느낌이 유연하고 광택이 있다.

(5) Type 5

綾織과平織을 혼합하여 배열하는 방식으로變化綾織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바탕의 조직이 3/1, 1/1, 3/1의 순서로 변화를 주며 무늬는 필요에 따라 1/2, 1/3, 1/4의 순서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능선의 방향은 바탕과 무늬가 같은 방향이다<도 8-1, 도 8-2>. 유물중 2종의 직물만이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경위사의 색상을 달리

하여 직물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었으며 문양의 물출 효과도 높였다.

3) 撚組織(Leno weave)

일반 직물은 경사가 평행인데 반하여撚組織은 경사가 서로 평행하지 않고 2올 이상의 경사들이 1올 또는 수 올의 위사 사이에 서로 교차하는 방법이다. 유물에 나타난撚組織의 유형을 세분하면 4 Type으로 분류된다.

(1) Type 1

바탕조직은 2올의地經絲와撚經絲를 1조로 배치하여 위사 1올씩을 넣은 후 경사를 교차시키며 무늬는 교차되었던 2올의 경사를 다시 풀어 나란히 하여 위사와平織이나綾織으로 짠 직물류이다<도 9-1, 도 9-2>. 이때 2올의 경사 즉 지경사와 익경사가 한조가 되며 이들은 서로 꼬여있으므로 육안으로 보면 마치 1올의 경사와 같이 보인다. 또한 익경사는 지경사와 각 위사마다 교차하게 되므로 1조의 경사와 위사 사이에는方形의 구멍이 생겨 반투명하다.

그런데 저구에 위사를 위입시키는 순서에서 1올을 저구에 위입시킬 때마다 1조의 경사를 완전 교차하면<도 9-2>와 같이 위사의 간격은 동일하게 성글게 나타나는데 반면에 위사 3올을 계속하여 경사가 반교차될 때 마다 위입한 다음에 1조의 경사를 완전히 교차시키고 다시 위사 3올을 경사 반교차 속에 위입시키는 방법을 반복하여 3올씩의 위사가 몰려서 제작되어서 가로줄 무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유물 중에 17종의 직물이 이러한 유형으로 제작되었으며 대부분 얇고 투명하다.

(2) Type 2

Type 1과 유사한 조직으로 3올의 경사가 1조가 되었으며 1올은撚經絲, 2올은地經絲가 되어 각 위사를 지날때마다 서로 교차되었다<도 10-1, 도 10-2>. 바탕은 경사 3올이 서로 꼬여서 마치 한 가닥의 직선으로 내려온 경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각 조의 경사군 사이에는方形의 구멍이 생긴다. 무늬부분은 꼬였던 3올의 경사가 다시 풀어져 위사와綾組織, 平織, 浮織으로 짜여 불투명하게 표현되었다. 저구에 위사를 위입하는 방법은<도 10-3>처럼 위사 3올이 계속해서 경사가 반교차될 때마

다 위입된 후 한번 완전교차 시키고 다시 3올의 위사를 동일한 방법으로 넣고 완전 교차시키는 방법으로 위사 3올씩 물려 가도록 표현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유물 중에 모두 11종의 직물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었으며 특히 시대가 올라가는 1302년 阿彌陀佛腹藏織物에서 많이 보인다.

(3) Type 3

4올의 경사가 한조가 되어 교차하며 다시 옆에 있는 경사와 연속적으로 교차하여 마치 그물모양으로 된 직물류이다(도 11-1, 11-2).

조직을 좀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4줄의 경사를 각각 A, B, C, D의 순서로 정한다. A와 C의 경사는 擲經絲이고 B와 D의 경사는 地經絲가 된다. 첫번째 위사(위사의 배열은 아래서부터)에는 A 경사가 위로 가고 두번째 위사에서 A 경사가 위로 가며 A와 D경사가 교차된다. 세번째 위사에서는 A와 C경사가 위로 가고 네번째 위사에서는 C경사가 옆조의 B경사와 교차되어 네줄의 위사가 한 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때 경사는 Type 1이나 2와 같이 직선으로 내려오지 않고 지그재그 형태를 이루며 내려오게 되므로 바름모형의 구멍이 생기며 직물의 외관은 니트 직물처럼 탄력이 있고 반투명한 특유의 擲織物이 된다. 요즘 제작되는 한국 전통직물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유물 중에 모두 20종의 직물이 이러한 유형으로 제작되었으며 Type 3과 같이 시대가 올라가는 1302년 阿彌陀佛腹藏織物에서 많이 보인다.

(4) Type 4

바탕은 Type 1과 같이 2올의 경사가 1조가 되어 교차되는 擲組織이며 바탕 자체의 무늬는 교차되었던 2올의 경사가 풀어져 위사와 함께 平織으로 제작되거나 아니면 위사를 길게 浮出시켜 무늬를 제작한다(地紋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바탕에 은은히 깔린 地紋 이외에 별도의 上紋을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만 작은 북을 사용하여 다른 색상의 繪緯絲를 위입하여 일종의 二重織과 같은 효과로 무늬가 제작된다(도 12-1, 도 12-2). 이때 繪緯絲로는 주로 다른 색사나 금사를 사용하며 직물의 폭 전체에 걸쳐 위입되지 않고 무늬 부분에만 돌려 감아 마치 수를 놓은 느낌을 준다.

이러한 방법은 현대의 조직법 분류 중 레펫직

(lappet weave)이나 縫取織(Swivel weave)과 원리가 같은데 繪緯絲의 소모를 방지하고 이면에는 길게 건너 뛰는 위사를 잘라 破絲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무늬의 가장자리가 깨끗한 장점을 갖는다. 유물 중에 모두 3종이 이러한 유형으로 제작되었다.

4) 二重組織

경사나 위사 중에 하나, 혹은 경사와 위사 모두를 이중으로 하여 문양을 표출하는 방법이다. 유물에 나타난 二重組織의 유형을 세분하면 3Type으로 분류된다.

(1) Type 1

경사는 한 종류이며 위사는 地緯絲와 紋緯絲의 二重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서 緯裏附織(weft-backed weave)에 속하는 직물이다. 이러한 유형은 다시 바탕조직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4Type으로 분류된다.

① 바탕 조직은 地經絲와 地緯絲에 의해 平織으로 되었으며 무늬부분에만 별도의 紋緯絲(金銀絲)를 덧걸어 地經絲와 紋緯絲에 의해 1/5 위 6배능으로 제작되는 방법이다. 유물 중에는 1종의 직물이 이러한 유형으로 제작되었다(도 13-1, 도 13-2).

② 바탕조직은 地經絲와 地緯絲에 의해 2/1의 경 3배능으로 조직되며 무늬부분은 역시 별도의 紋緯絲(金銀絲)를 덧걸어 地經絲와 紋緯絲에 의해 1/2, 1/3, 1/4, 1/5의 綾織이나 5枚 縷子織으로 제작되는 방법이다. 유물 중에는 15종의 직물이 이러한 유형으로 제작되었다(도 13-3).

③ 바탕조직은 地經絲와 地緯絲에 의해 제작되는데 바탕 자체에도 경삼매릉지에 위삼매릉문의 방법으로 地紋이 제작되었다. 또한 무늬 부분에는 紋緯絲(金絲, 色絲)를 덧걸어 地經絲와 1/2, 1/3, 1/4의 위능직으로 제작되는 방법이다. 유물 중에는 모두 3종의 직물이 이러한 유형으로 제작되었다(도 13-4).

④ 바탕조직은 地經絲와 地緯絲에 의해 변화 수자직으로 제작되었으며 무늬 부분만 紋緯絲(色絲)를 덧걸어 1/5의 위 6배능으로 제작되는 방법이다. 유물 중에는 1점만이 이러한 유형으로 제작되었다(도 13-5).

⑤ 바탕조직은 ③과 같이 地紋이 깔려 있는 綾織에 織俞되었으나 차이점은 金絲를 직물 폭 전체

에 넣지 않고 上紋이 있는 부분에만 縫取織의 방법으로 織成하여 무늬를 표현하였다. 유물 중에는 2종의 직물이 이러한 유형으로 제작되었다.

이와같은 Type 1과 같은 유형의 이중직물은 무늬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덧 사용되는 위사를 무늬 부분에만 이중으로 걸었으며 대부분이 金絲(銀絲, 銅絲도 있음)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유물 중에는 모두 20점이 이러한 조직으로 제작되었으며 紋緯絲로는 金銀絲 18종, 色絹絲가 2종 사용되었다.

(2) Type 2

경위사 모두 이중으로 제작이 되었다. 경사는 바탕을 이루는 地經絲 이외에 別經絲를 地經絲 두을 건너 한올씩 덧걸었으며 위사도 地經絲와 함께 紋緯絲를 덧걸어 이중으로 하였다<도 14>. 즉 바탕은 地經絲와 地緯絲에 의해 平織으로 제작하였으며 이때 別經絲는 뒷면에 그대로 떠 있게 된다. 무늬 부분에는 地緯絲 위에 紋緯絲를 이중으로하여 地經絲, 別經絲, 地緯絲, 紋緯絲의 4종의 실이 교차하여 제작되었다. 그러나 무늬없는 곳에서는 다시 地經絲, 地緯絲만 平織으로 교차하여 表織物(upper face fabric)을 만들고 紋緯絲와 別經絲는 뒷면에서 裏織物(under or back fabric)을 만든다. 즉 이곳에서는 表, 裏織物이 분리되어 있다. Type 1과는 다르게 매우 가늘고 金絲와 유사한 색의 別經絲를 넣어 金絲의 효과를 높였다. 유물 중에는 1종의 직물만이 이러한 유형으로 제작되었다.

(3) Type 3

이중의 경사와 이중 혹은 삼중으로 위입된 여러 색의 위사가 한 조가 되어 3매능직으로 제작되는 방법이다. Type 1에서는 經絲의 종류가 表經絲 한 종류인데 반하여 이것은 表經絲와 心經絲의 2 종류를 사용하는 데 表經絲는 직물의 表裏에 모두 나타나며 心經絲는 직물의 表組織과 裏組織의 중간에 들어가서 접결시키는 역할을 하여 대부분 직물 表裏에 나타나지 않고 필요한 곳에만 노출되는 제작방법이다<도 15>. 이때 위사는 地緯絲 이외에 4종의 色絲로된 紋緯絲를 사용하여 다양한 색상의 무늬가 표현되었다. 유물 중에 1종의 직물만이 이러한 유형의 조직으로 되었다.

5) 縹子織

經絲와 緯絲의 조직점을 뿔 수 있는 대로 적게 하면서 또 이 조직점을 連接시키지 않고 分散시켜 직물의 표면은 經絲 또는 緯絲만 돋보여 광택이 풍부하고 지질이 부드러운 조직이다.

본 유물 중에는 2점의 직물이 縹子織이며 모두 3뿔 5매수자직으로 되어 있다<도 16-1, 16-2>. 표면에 經絲가 나타나 經縹子라고도 한다.

2. 織物名稱의 設定

305점의 高麗時代 絹織物을 분석한 결과 당시에 이미 平織, 綾織, 摺組織, 二重組織, 縹子織의 제작법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표 1>.

<표 1> 高麗時代 腹藏織物의 組織法

출처	조 직		摺 組 織			二重 組織		縹子 織
	綾	綺	二經 絞羅	三經 絞羅	四經 絞羅	錦	織金	
1302년 阿彌陀佛腹藏織物	30	2	6	10	18	2	6	
長谷寺 鐵造藥師佛腹藏織物	9		7		1		10	2
文殊寺 金銅如來坐像腹藏織物	9		4	1	1		3	
鳳棲里塔 織物						1		
합 계	50		48			3	19	2

※ 동일한 직물이 여러 조각 있는 경우는 1種으로 정리하였으며, 平織의 경우는 동일한 직물이 細片으로 잘라진 것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정확히 몇 종류의 다른 직물인지 구분이 곤란하여 조직법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平織에 비하여 紋織物이 많으며 紋織物 中には 擱組織과 綾織이 많고 다음으로 二重組織이 많이 사용되었다. 縞子織은 1346년 유물에서만 2점이 발견되었으므로 고려말기에는 다른 組織에 비하여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고려말기에 제작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그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크게 유행되었다고 하겠다.

본 유물중 특이한 제작법으로는 擱組織 中の 4개의 경사가 網처럼 교차된 四經絞羅라든가 綾織 中の 異向六枚綾, 二重組織 中 두 종류의 경사 즉 心經絲 및 表經絲와 多色の 紋緯絲를 사용한 전형적인 緯錦과 같은 직물은 統一新羅時代의 技法이 이어진 古式의 製織法으로 朝鮮時代에는 쇠퇴되어 찾아보기 어려운 高麗時代 絹織物,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上代社會 및 中世에 絹織物 제작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二重組織 中には 織金類가 많은데 이는 元과 공통적인 경향이며 각종 유물의 製織法은 宋, 元대의 유물에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게 나타나 高麗時代의 絹織物 製織水準은 中國에 못지 않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위의 16종류의 조직 유형을 문헌에 기록된 당시의 絹織物 名稱과 연결하여 高麗時代에 사용된 絹織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명을 하고자 한다.

첫째, 平織으로 이루어진 絹織物의 종류는 絹, 紬, 絹, 縞이 있다.

高麗時代의 絹은 인만적인 絹織物의 통칭이 아닌 특정한 絹織物을 지칭하는 것으로 良質의 家蠶에서 뽑아 광택이 좋고 굵기가 일정한 絹絲로 제작한 平絹織物이다. 紬는 일반적으로 絹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野蠶, 副蠶, 玉蠶에서 뽑아 굵기가 일정하지 않고 광택이 지러진 絹紡絲를 이용한 평직 직물로 흔히 綿紬라고 불리었다. 絹과 紬는 모두 평직 Type 1과 같은 조직으로 되어있어 쉽게 육안으로 구별은 어렵지만 고려시대에는 문헌 기록에 의해³⁰⁾ 絹은 紬보다 가치가 높은 직물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絹는 生絲를 주원료로 하여 경위사에 꼬임을 많이 주어 제작한 紬나 絹보다

가슬란 직물로 분류되며 絹중에는 輕絹라고 하여 가늘고 꼬임이 많은 경위사를 사용하여 밀도를 성글게 제작한 얇고 반투명한 平絹織物도 있다. 絹의 조직유형은 역시 平織 Type 1과 같으며 輕絹의 조직유형은 平織 Type 2와 같다고 설명할 수 있다. 陳維稷은 輕絹는 輕容, 輕紗와 같다고도 하였으니³¹⁾ 고대의 輕絹와 輕紗는 같은 종류의 직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縞은 경위사의 밀도를 치밀하게 짠 平絹織物인데 일반적으로 경사의 밀도가 위사의 두배가 되어 가로 방향의 줄이 생긴다.

둘째, 綾織으로 이루어진 絹織物의 종류는 綺와 綾이 있다. 綺는 平織 바탕에 綾織으로 부늬가 제작된 綾보다 초기에 발달한 紋織物로 高麗時代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綾은 綾織 바탕에 능선의 방향이나 각도가 다른 綾織으로 부늬가 제작된 직물로 綺보다 치밀하고 조직의 변형이 용이하여 다수의 紋織物이 남아있다. 고려유물의 조직유형 별 분류에서 綾織 Type 1은 綺로 분류하였고 Type 2, 3, 4, 5는 綾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擱組織으로 이루어진 絹織物은 羅가 있다. 문헌자료에 의하면 羅는 高麗 전 시기를 통하여 각종 衣料는 물론 외국에 보내는 國贖物로도 많이 사용되었던 高麗時代의 대표적인 絹織物로 기록되어 있는 바, 유물 중에 다수의 직물편이 남아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록이 입증되었다고 생각된다. 고려유물의 조직유형 분류에서 擱組織 Type 1, 2, 3, 4를 모두 羅로 분류하였으며 특히 Type 4는 분헌심의 金羅의 조직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二重組織으로 이루어진 絹織物의 종류는 織金과 錦이 있다. 織金織物은 대부분 한 종류의 地經絲와 地緯絲, 紋緯絲로 제작되었으며 地經絲 이외에 別經絲가 사용된 직물도 1점이 있다. 錦은 地經絲, 心經絲와 地緯絲, 紋緯絲로 제작된 전형적인 緯錦이 1점 있으며 한 종류의 地經絲와 두종류 위사 즉 地緯絲, 紋緯絲에 의해 간단히 제작된 錦이 2점이 있다. 고려유물의 조직 유형 분류와 연결하면 高麗時代의 분헌에 나타난 錦은 二重組織 Type 1 (3), (4)의 조직 중에 紋緯絲로 色絲를 사용

30) 「高麗史」, 卷 80, 志 34, 食貨 3, 祿俸, 睿宗 10년

31) 陳維稷 主編, 앞 책, 1984, p.296.

한 경우거나 혹은 Type 3과 같은 조직으로 분류하였으며 織金 직물은 본 조사 대상 유물의 조직 분석중 二重組織 Type 1-①, ②, ③이나 Type 2의 조직으로 분류하였으며 織金衣, 金緞, 金塔子, 金線 등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더욱 넓은 의미로는 錦에 속하며 掖庭局의 錦匠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다섯째, 縹子織으로 이루어진 絹織物은 緞이 있다. 經絲가 표출되는 3뿔 5枚經縹子 1종류이다.

V. 織物 紋樣의 分析

조사한 305점의 絹織物 중에 紋織物은 모두 158점 이었다. 이는 高麗時代에 귀족 사회에서 紋織物이 널리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다수의 紋織物에 나타난 紋樣 고찰을 통하여 당시 織物紋樣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먼저 본 연구 대상의 織物紋樣 展開方式을 9가지 類型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다음으로 紋樣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表現樣式의 특질을 고찰한다.

1. 紋樣의 展開方法

織物紋樣의 展開方法은 크게 規則的인 展開法과 不規則的인 展開法으로 분류되며 規則的인 展開法은 다시 階段形(Half-Drop Network), 브릭형(Brick Network), 菱形(Diamond Network), 格子形(Checkerboard Arrangement), 六角形(Hexagon Network), 複合形(Mixed Arrangement) 등으로 세분하고, 不規則的인 展開法은 充填形(Allover Ar-

angement), 散在形(Scattered Arrangement), 混合形(Combination Arrangement)으로 세분된다.

<표 2>에서와 같이 規則的인 展開가 不規則的인 展開보다 많았으며 規則的인 展開에서는 六角形, 菱形은 많지 않고 주로 브릭형, 格子形이 매우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階段形은 밀도가 성근 綾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같은 綾이라 하더라도 밀도가 치밀한 綾에서는 주로 不規則的인 展開로 무늬가 표현되었으며 階段形 展開法은 한 점도 나타나지 않아서 같은 綾에서 밀도가 성근 직물과 치밀한 직물은 紋樣展開에서 두 경향으로 구분되었다. 브릭형은 대부분의 織金에서 많이 사용었고, 格子形은 羅나 織金에 주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브릭형이나 複合形은 세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階段形은 1302년 阿彌陀佛腹藏織物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階段形은 다른 전개방법보다 시대가 앞서는 양식으로 생각된다. 六角形, 菱形은 朝鮮時代 직물에 비하여 사용 예가 드물고 그 외에 朝鮮時代 紋樣展開에 보이는 정방형, 양과형, 선형 등은³²⁾ 한 점도 없다.

不規則的인 展開에서는 散在形, 混合形에 비하여 充填形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주로 綾, 羅 직물에 唐草·草花紋이 시문된 경우가 많았다.

이와같이 고려직물의 紋樣展開方法은 朝鮮時代 직물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보인다. 즉 朝鮮時代 직물은 대부분 複合紋樣이 不規則的으로 표현된 것에 반하여 高麗時代에는 단순한 單位紋樣을 階段形, 브릭형, 格子形으로 나란히 배열한 직물이 과반수를 넘을 정도로 紋樣의 規則的인 展開의 경향이 높았다.

<표 2> 高麗時代 腹藏織物에 나타난 紋樣의 展開方法

문양의 전개법 직물의 종류	規則 配列						不規則 配列		
	階段形	브릭形	格子形	菱形	六角形	複合形	充填形	散在形	混合形
織金, 錦		12	3				3		3
羅		2	11	2		4	7	2	2
綾	10	1	4	2	1	5	17	1	
綺				2					
絹		1							
計	10	16	18	6	1	9	27	3	5

32) 권윤희, 앞 책, 1988, p.94

〈표 3〉 高麗時代 腹藏織物에 나타난 紋樣의 種類

紋樣의 種類	單獨紋樣										複合紋樣													
	植物紋		動物紋			幾何形紋					雲紋		植物紋		動物紋			幾何形紋			吉祥紋			
	小花紋	靈芝紋	鳥紋	兔紋	蝴蝶紋	龜甲紋	八角形菱花紋	小花紋	卍字紋	菱紋	飛雲紋	靈芝雲紋	絲雲紋	唐草·草花紋	梅竹紋	花蝶紋	龍紋	烏兔紋	唐草·菱花紋	龜甲地唐草紋	菱花入菱紋	唐草紋	如意·折枝花花紋	七寶紋
織金, 錦	7	1	4	2									2	1		1	1					1		1
羅	6				1		1	1	1	2	1		8		1	2			1					5
綾	3			1		1	1		2	3		2	13			3		8						2
綺									1											1				
絹	1																							
計	17	1	4	3	1	1	1	2	1	4	5	1	2	23	1	1	6	1	8	1	1	1	5	3

2. 紋樣의 種類

고려 직물들에 표현된 紋樣의 종류를 크게 한 종류의 單位紋樣으로 구성된 單獨紋樣과 2가지 이상의 單位紋樣으로 구성된 複合紋樣으로 분류하였다.

單獨紋은 小花紋이나 靈芝를 單位紋樣으로 반박한 植物紋類와 새, 토끼, 나비를 單位紋樣으로 한 動物紋類, 그밖에 歸甲紋, 八角形菱花紋, 團紋, 回紋, 綾紋을 연속으로 진기한 幾何形紋類로 분류된다.

複合紋은 2종류 이상의 單獨紋樣이 조화되어 표현된 것으로 구름과 새 혹은 寶紋이 복합된 雲紋類, 각종 草花가 복합되고 때로는 새와 나비가 곁들인 植物紋類, 卍字 바탕에 龍이 복합된 龍紋이나 새와 토끼의 烏兔紋과 같은 動物紋類, 그밖에 幾何形紋類, 吉祥紋類가 있다.

본 연구대상의 직물에 나타난 紋樣은 〈표 3〉에 시와 같이 單獨紋樣이 전체의 약 40%로 대부분이 複合紋樣으로 구성된 朝鮮時代 직물에 비하여 單獨紋樣의 사용이 비교적 많았음을 알 수 있다. 單獨紋樣 중에는 植物紋이 가장 많으며 植物紋은 대부분 小花紋으로 표현된다. 그밖에 단순하게 도안화된 토끼나 새의 紋樣도 다른 시대의 직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이 시대만의 특징적 紋樣으로 부각된다. 또한 대부분의 單獨紋樣은 織金에 시문되었는데 단순한 문양구성을 金, 銀 등의 화려한 색

상으로 호화로움을 표현하였다. 複合紋樣 중에도 역시 植物紋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唐草·草花紋의 형태로 綾, 羅의 직물에 시문되었다.

이들 紋樣의 특징은 小形化이다. 單獨紋樣의 경우에서 小形化한 單位紋樣을 규칙적으로 반복 시문하였으며 複合紋樣의 경우에서도 꽃이나 새 등의 모티프가 小形化된 경향이 나타난다. 朝鮮時代로 넘어가면 紋樣은 다시 커지기 때문에 문양의 小形化는 시대의 縱的인 구분에서 중세적 특징이 확실하게 부각된다고 하겠다.

고려시대 문양을 동시대의 隣接國과 橫的인 비교를 하면 元代 직물과 紋樣의 소재선택이나 표현양식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日本에 소장된 名物裂 중에 極上代 혹은 上代 직물로 불리워지며 宋, 元代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된 직물들과 더욱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사대상의 직물은 宋, 元代의 織物들과 유사한 경향이면서도 다수의 직물에서 中國과 다르게 精緻한 맛이 없고 素朴하며 形態特性에 대한 執着이 없으며 單純化 傾向이 현저한 그리면서도 변화를 추구하는 특징에서 宋, 元代 織物과 구분이 된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이와 같은 織物 紋樣의 특징은 高麗時代의 青磁象嵌, 螺鈿漆器, 佛畫 등의 다른 공예품과 표현 양식상에 있어 일맥상통한 점이 인정되어 韓國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겠다.

VI. 要約 및 結論

高麗時代의 製織法은 크게 나누어 平織, 綾織, 擲組織, 二重組織, 縹子織의 5種이 있으며, 이를 다시 세분하여 16종의 Type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組織類型을 문헌에 나타난 高麗時代 絹織物 名稱과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平織으로 이루어진 絹織物의 종류는 絹, 綃, 縹이다.

둘째, 綾織으로 이루어진 絹織物의 종류는 綺와 綾이 있다.

셋째, 擲組織으로 이루어진 絹織物로는 羅가 있다.

紗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데 古代에는 밀도가 성근 平絹織物을 일컬었다. 그러나 高麗時代에는 2올 혹은 3올의 경사가 교차된 擲組織의 紋羅가 새롭게 유행되었고 이들은 외관상으로 密度가 성근 平織의 方目紗와 같기 때문에 紗로 혼돈되어 호칭되기도 하였으며 朝鮮時代에 이르러 오히려 平織의 紗는 점차 사라지고 擲組織의 紗가 정착되었다고 생각된다.

넷째, 二重組織으로 이루어진 絹織物의 종류는 織金과 錦이 있다.

다섯째, 縹子織으로 이루어진 絹織物로는 縹이 있다.

본 연구대상의 高麗時代 絹織物은 平織에 비하여 紋織物이 많았으며 紋織物 중에는 擲組織과 綾織이 많고 다음으로 二重組織이 많이 사용되었다. 縹子織은 1346년 유물에서 2점 발견되었으므로 高麗末期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擲組織 중의 4개의 경사가 網처럼 교차된 四經紋羅라든가 綾織 중의 異向六枚綾, 二重組織 중 두 종류의 경사(心經絲 및 表經絲) 多色の 紋縹絲를 사용한 전형적인 縹錦과 같은 직물은 統一新羅時代의 技法이 이어진 古式의 製織法으로 朝鮮時代에는 쇠퇴되어 찾아보기 어려운 高麗時代 絹織物,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上代社會 및 中世의 絹織物 제작방법의 특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二重組織 중에는 織金類가 많은데 이는 元과 공통적인 경향이며 각종 유물의 製織法은 宋, 元

代의 유물에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게 나타나 高麗時代의 絹織物 製織水準은 中國에 못지 않는 기술을 보유하고었다고 인정된다.

絹織物의 나비는 47~60cm로 朝鮮時代의 絹織物보다 광폭이며 역시 宋, 元代의 유물과 유사하였다.

絹織物의 두께는 직물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데 織金과 錦類가 0.4~0.6mm 정도로 가장 두껍고 다음으로 綾과 羅이며, 綃는 0.1~0.15mm 정도로 가장 얇은 직물임을 알 수 있다.

高麗時代 絹織物의 紋樣 考察 결과는 다음과 같다.

紋樣의 展開方法은 階段形, 卍字形, 格子形, 菱形, 六角形, 複合形의 規則的인 展開法과 充填形, 散在形, 混合形의 不規則的인 展開法이 모두 사용되었는데, 不規則的인 展開法이 많았던 朝鮮時代 직물에 비하여 規則的인 展開法이 많이 사용되었음이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직물에 사용된 紋樣의 종류는 植物紋, 動物紋, 雲紋, 吉祥文, 幾何紋이 있다. 이들은 紋樣의 構成方式에 따라 單獨紋樣이나 複合紋樣으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이 複合紋樣으로 표현된 朝鮮時代 직물에 비하여 單獨紋樣이 많이 시문되었음을 알 수 있다. 單獨紋樣 중에는 植物紋, 動物紋, 幾何紋類가 있는데 植物紋이 가장 많았으며 植物紋은 대부분 小花紋으로 표현되었다. 그밖에 單純化된 토끼나 새의 單位紋樣도 다른 시대의 직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만의 특징적인 紋樣이다. 複合紋樣 중에는 雲紋, 植物紋, 動物紋, 吉祥紋, 幾何紋類가 있는데 역시 植物紋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寫生風의 唐草·草花紋으로 표현되었다.

대부분의 문양은 單純化, 小形化되었다. 朝鮮時代로 넘어가면 紋樣은 다시 커지기 때문에 紋樣의 小形化는 이 시대의 특징으로 확실하게 부각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직물 紋樣의 특징은 高麗時代의 靑磁나 螺鈿漆器, 그밖에 高麗佛畫의 供養者 衣紋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므로 高麗時代의 다른 공예품과도 획리적인 연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직물의 紋樣을 表現하는 방법에 있어서 바탕과 紋樣이 두드러지지 않는 端雅한 朝鮮時代 직물에 비하여 高麗時代에는 金銀線을 이용한 織金

織物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화려한 金線으로 그려진 高麗佛畫, 金銅佛像, 金銀字寫經, 金銀線入絲香堊, 花金青磁 등의 당시 공예품과 밀접상통한 것으로 高麗時代 공예미술의 호화스러운 貴族的 경향을 보여주는 일면이 된다.

高麗時代 직물의 紋樣表現樣式을 宋, 元代 직물과 비교하면, 紋樣의 素材選擇이나 表現方法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中國織物은 대부분 曲線의이고 完璧하게 均衡과 調和를 이루는 데 반하여 高麗 腹藏織物의 경우 다수의 직물에서 선의 표현이 單純, 素朴하고 전체적으로 餘白이 있으며 均衡을 이루는 가운데 약간의 변화를 주는 등 韓國의인 특징을 느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소수의 직물 중 日本에 所藏된 中國의 名物裂과 紋樣의 素材, 展開方式, 表現樣式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紋樣의 직물들은 高麗時代 末期에 元과 직물교류가 많았으므로 中國織物을 수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물의 유행심리에 따라 중국과 紋樣을 서로 모방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현재 日本에서 中國의 직물이라고 알려진 名物裂 중에 高麗에서 보낸 직물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물이 製織된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纖維의 斷面完全度 計測과 같은 科學的인 分析이나 紋樣樣式의 심도 깊은 比較 分析 등 다각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연구할 과제로 남겨 놓는다.

參考文獻

〈一般書〉

- 姜仁求, “瑞山 文殊寺 金銅如來坐像腹藏遺物”, 美術資料 18, 1975
 國立中央博物館編, 「佛舍利 莊嚴」, 도서출판 김문사, 1991
 權憲耕, 「高麗寫經의 寫經의 研究」, 미진사, 1986
 金相溶 “遺物을 통하여 본 古代 纖維技術”, 「織物 調査」2권 2호, 한국직물 시험검사소, 1974 pp.1~6
 민길자, “우리나라 古代織物 研究—絹織物을 中心으로—” 「教育論叢」 제2집, 국민대학교 1982
 —, “織物의 種類에 관한 研究”, 「教育論叢」

제6집, 국민대학교 1986.

- , “한국 전통 문직물의 조직에 대한 고찰 I”, 「教育論叢」 제10집, 국민대학교, 1990
 —, “한국 전통 섬유제품의 발굴” 「복식」 제 18호, 한국복식학회, 1992
 閔泳址, 「淸陽 長谷寺 高麗鐵佛 腹藏遺物」, 「인문 과학(연세대)」 15, 16호, 1966
 온양민속박물관 편, 「1302년 阿彌陀佛腹藏織物의 調査研究」, 계몽사, 1991
 禹範植, 「織物組織學」, 文匯堂, 1971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韓國服飾史論」, 一志社, 1983
 張慶姬, “14세기의 高麗染織 研究”, 「美術史研究」 190호 191호, 1991
 曹圭和, “韓國におけ 紋樣の造形的 特性に 關する 研究—植物紋樣の展開を 中心に—” お茶の水女子大學 博士學位 請求論文, 1989
 千惠鳳, “鳳林寺 木造如來坐像의 腹藏遺物”, 「書誌學」 제7호, 韓國書誌學會, 1982
 洪潤植, 「朝鮮前記上院寺 文殊童子像」, 「考古美術」 164, 1984

〈西洋書〉

- MARYTA M. LAWMAN, S. SP. S. 「THE SECRET OF EXCELLENCE IN ANCIENT CHINESE SILK」, SOUTHERN MATERIALS CENTER INC. TAIPEI, 1984
 YOON-HEE KWON, 「SYMBOLIC AND DECORATIVE MOTIFS OF KOREAN SILK : 187-5~1975」, IL JI SA, SEOUL, 1988
 RICHARD M PROCTOR, 「THE PRINCIPLES PATTERN FOR CRAFTSMAN AND DESIGNER S」, NEW YROK, VAN NOSTRAND REINHOLD Co.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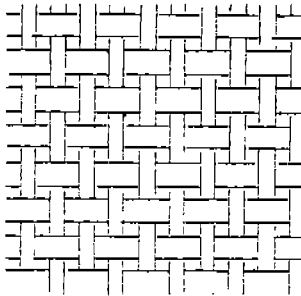
〈日本書〉

- 渡邊素舟, 「東洋文樣史」, 富山房, 1971
 明石染人, 「染織文樣史의 研究」, 思文閣出版, 1977
 北村哲郎, 「日本の文樣」, 源流社, 1988
 —, 「日本の織物」, 源流社, 1988
 —, 「絹」, 日本染織藝術叢書, 藝草堂,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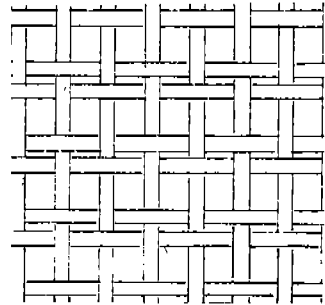
山邊知行,「染織」,日本美術大系 VIII,講談社,1981
 _____ 監修,「日本の染織 2」,中央公論社,1980
 西村兵部,「紋織 II」,日本染織美術叢書,藝草堂,1971
 _____,「紋織 I」,日本染織美術叢書,藝草堂,1975
 _____,「中國の染織」,藝草堂,1973
 _____ 編,「りヨソ織物美術館」,凸版印刷株式會社,1985
 小杉一雄,「中國文様史の研究」,新樹社,1959
 布目順郎,「絹と布漢の考古學」,雄山閣,1988
 _____,「養蠶の起源と古代絹」,雄山閣,1972

〈中國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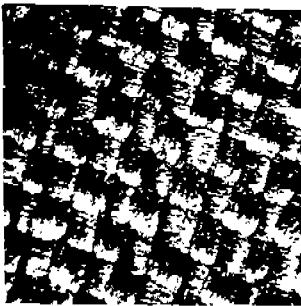
高漢玉 編,「中國歷代織染繡圖錄」,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6
 繆良云,「中國歷代絲綢文様」,紡織工業出版社,1988
 吳淑生·田自兼,「中國染織史」,南天書局,1988
 張聖福 編,「福州南宋黃昇墓」,福建省博物館,文物出版社,1982
 陳維稷 主編,「中國紡織科學技術史」,科學出版社,1984
 湖南省博物館·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編,「長沙馬王堆一號漢墓」,文物出版社,1973
 黃能馥 編,「中國美術全集—工藝美術編 6,7 印染織繡」,文物出版社,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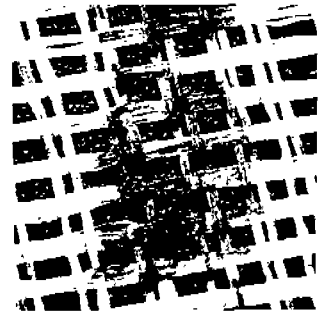
〈圖 1-1〉平織(Typ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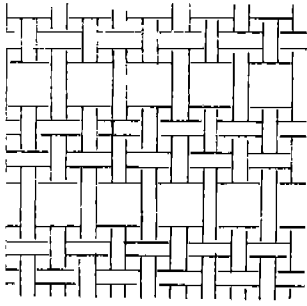
〈圖 2-1〉變化平織(Typ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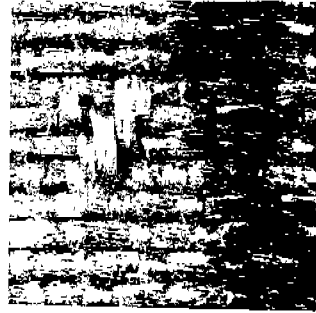
〈圖 1-2〉絹 10倍 擴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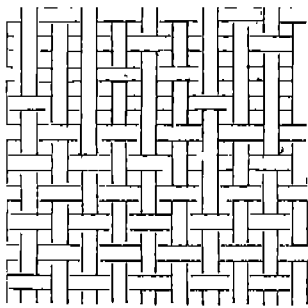
〈圖 2-2〉絹 10倍 擴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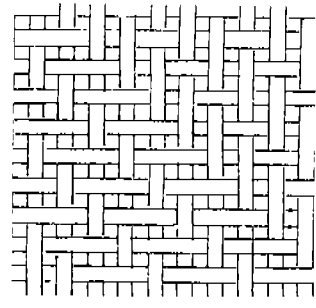
〈圖 3〉變化 平織(Typ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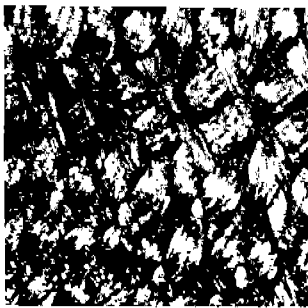
〈圖 5-2〉素色唐草紋綾 10吋 擴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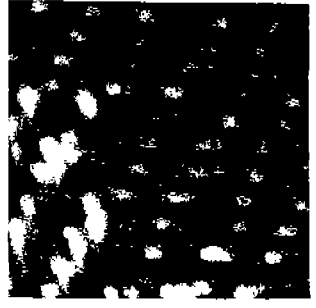
〈圖 4-1〉平地綾紋綾織(Typ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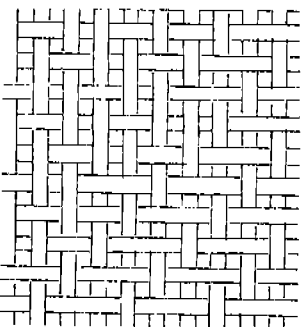
〈圖 6-1〉同向綾地綾紋綾織(Typ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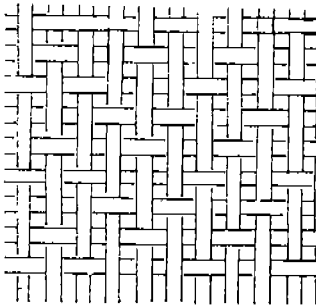
〈圖 4-2〉暗綠色菱花紋綺 10倍 擴大



〈圖 6-2〉綠色草花紋綾 10倍 擴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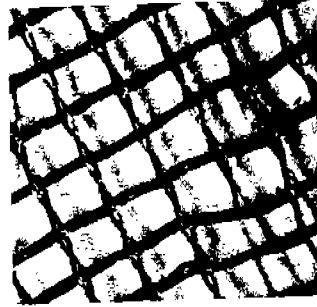
〈圖 5-1〉異向綾地綾紋綾(Typ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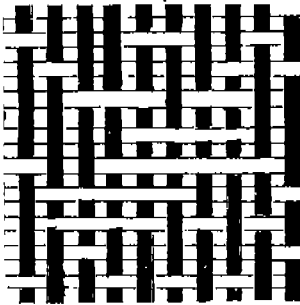
〈圖 7-1〉綾地浮綾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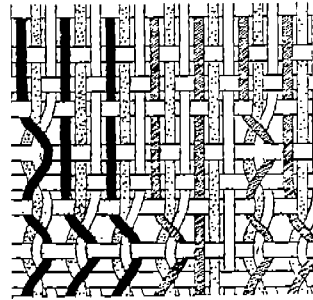
〈圖 7-2〉青色唐草綾花紋 10배 擴大



〈圖 9-2〉青綠色如意, 折枝花紋羅 10倍 擴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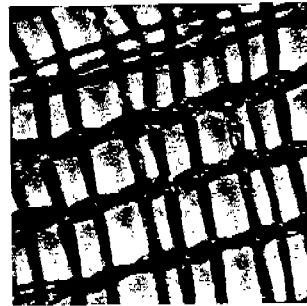
〈圖 8-1〉變化綾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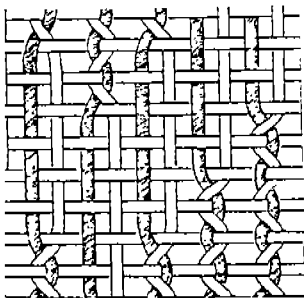
〈圖 10-1〉三經絞組織(Typ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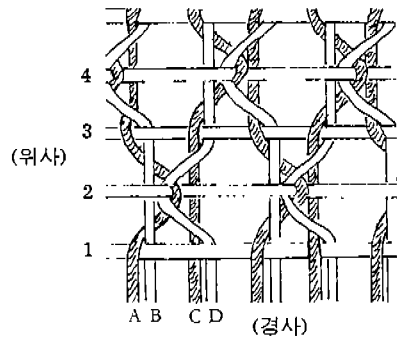
〈圖 8-2〉二色雲鶴紋綾 10倍 擴大



〈圖 10-2〉青綠色如意·折枝花紋羅 10倍 擴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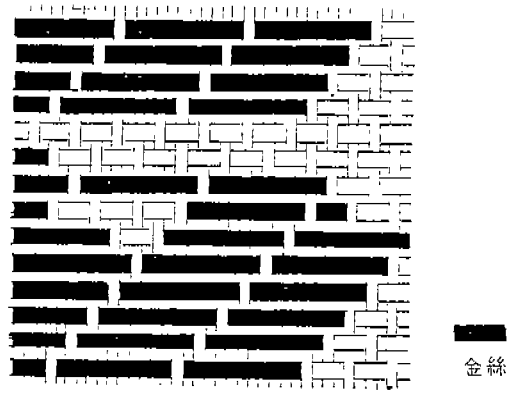
〈圖 9-1〉二經絞組織(Typ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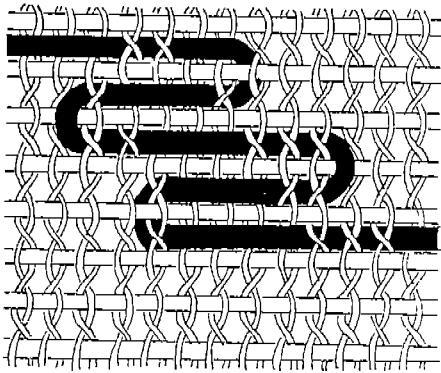
〈圖 11-1〉四經絞組織



〈圖 11-2〉朱黃色素羅 40倍 擴大



〈圖 13-1〉平地綾紋重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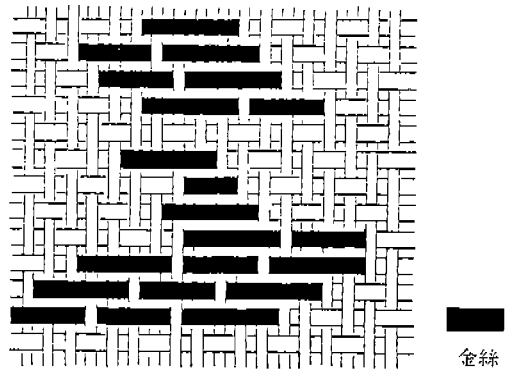
〈圖 12-1〉二經紋地縫取團紋羅擲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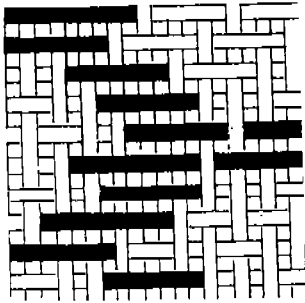
〈圖 13-2〉粉紅色鳥紋織銀 10倍 擴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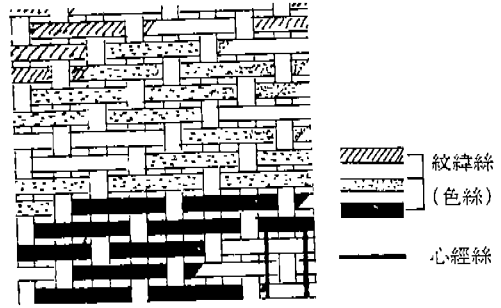
〈圖 12-2〉多色團紋羅 40倍 擴大(무늬부분)



〈圖 13-3〉綾地綾紋重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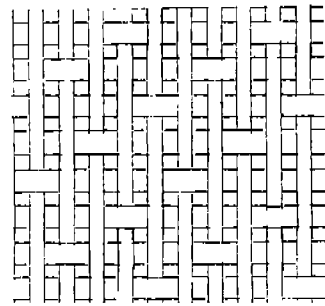
〈圖 13-4〉異向綾地紋重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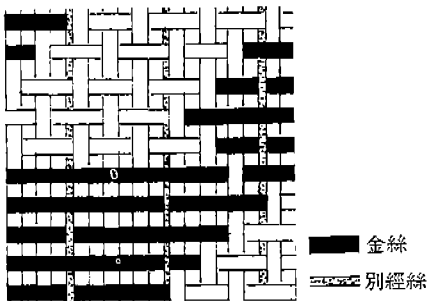
〈圖 15〉表經, 心經이 있는 緯錦組織



〈圖 13-5〉柳綠色梅竹紋錦 10倍 擴大



〈圖 16-1〉五枚縐子織



〈圖 14-1〉別經絲를 사용한 重組織



〈圖 16-2〉素色緞 10倍 擴大